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129

JCCT 2021-5-14

중국 근현대 학교체육교육의 선구자 馬約翰의 체육교육사상과 업적

A Study on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educational ideas of modern China ma yue-han

신의연*, 김연수**, 김대성***

Shin eui-yun*, Kim Youn-soo, Kim dae-sung*****

요약 馬約翰(1882-1966)은 중국의 근대 중국 북경성에서 태어난 체육 교육가이다. 그는 50년 가까이 중국 최고의 명문대 청화대학(清華大學)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의 업적은 비단 중국 청화대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양성하였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중국 근현대 과도기의 학교 체육 발전과 교육방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당시 중국 근대와 현대를 잇는 주요인물로 성장하는 청화대학의 출신 인재들이 미국유학을 가기 전 단계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馬約翰 체육사상의 형성의 기초는 그가 긴 세월 교육받은 성요한 대학과 청화대학 재직시절 집중 유학을 했던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馬約翰은 당시 중국사회의 예민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 한 번도 직접 그의 체육사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교육업적과 같이 활동했던 교수와 이들의 업적을 미루어 보건데 때, 馬約翰은 강건한 기독교주의와 연관된 YMCA 기독교 체육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실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馬約翰, 중국 체육교육, 기독교체육사상, 성요한대학, 청화대학

Abstract Ma Yue-Han was a sports educator from Bokgun, China during the modern period of China. He has been a professor of physical education at China's most prestigious university Tsing-Hua for nearly 50 years. His achievements do not remain at the level of nurturing healthy bodies of students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Tsing-Hua. He offered a new direction in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schools, he foundation of the formation of Ma Yue-Han's athletic ideas can be attributed to the long-educated St. John University and Springfield University, where he studied intensively during his tenure at Tsing-Hua University.

Also, judging from his fellow professors at Tsing-Hua University, Ma Yue-Han was influenced by the YMCA athletic spirit associated with strong Christianity and believed to have practiced it in the field of education.

Key words : Ma Yue-Han, Chinese Physical Education, Christian Physical Education, St. John's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주저자,교신저자) Received: March. 2, 2021 / Revised: March. 29, 2021

**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공동저자) Accepted: April 8, 2021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공동저자) *Corresponding Author: yilian@hanmail.net

접수일: 2021년 3월 2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29일

Dept. of Exercise Rehabilitation, Hanil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8일

I. 서론

馬約翰(1882-1966)은 중국의 근대시기 중국 복건성 출신의 체육교육자이다. 그는 50년 가까이 중국 최고의 명문대 청화대학(淸華大學)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의 업적은 비단 중국 청화대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양성하였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중국 근현대 학교 체육 발전과 교육방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당시 중국 근대와 현대의 주요인물로 성장하는 청화대학의 인재들이 미국유학을 가는 전 단계에서 체력단련과 신체활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중국 학교체육 시작과 발전, 그리고 사회체육으로의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馬約翰의 교육배경과 활동은 중국 근현대 학교체육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22세에 성요한(聖約翰)대학에 입학하여, 1911년 29세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중국 근대의 학교체육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이룬 대학이 바로 성요한(聖約翰)대학이다. 馬約翰은 성요한대학의 학교체육의 전성기 8년 동안 축구, 테니스, 야구, 육상 등 대표선수로 활동하였다. 그는 1905년 상해에서 개최된 제 1회 '만국운동회'와 1910년 남경 '진국운동회'의 중장거리 달리기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육상선수로도 유명하다.

이후 청화대학의 체육교육을 담당하여 은퇴하기까지 그는 평생 열정적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였고, 중국 체육계의 존경 받는 인물이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여 제 1. 2. 3회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였으며, 1954년에는 중국 육상협회 회장, 중화민국 체육총회 주석을 역임하였다.[1]

II. 馬約翰의 청화대학내 체육교육 업적

현재 중국 청화대학 캠퍼스 안에는 청화대 출신 교수 12명의 조각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문과이며 건축가 한명과 유일하게 체육계의 인물로 馬約翰의 조각상이 있다.

馬約翰의 청화대학내 업적으로는 가장 먼저 당시 학교내 진행되었던 학생의 체력단련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중국 청화대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

터 5시까지 교내 모든 도서관, 기숙사, 교실을 닫고 전 교생이 이른바 강제적 신체 단련활동인 '強迫運動'에 참여해야 했다.

馬約翰은 이 체육활동이 시행된 이후 청화대에 부임하였고, 청화대는 이전부터 이들 '強迫運動'이 있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馬約翰은 1914년 화학과 조교로 청화대에 부임하였다. 당시 총장은 선수로서의 명성을 지녔던 馬約翰을 불러 학교의 체력단련프로그램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1910과 1920년 사이 청화대 출신 중국 학생들이 별다른 체력단련 없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왜소한 체격으로 '東亞病夫' 즉, 동아시아의 병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청화대학은 중국정부가 지정한 졸업 후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예비학교로서 유학생으로 해외에 출국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이 육체적으로 허약하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強迫運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청화대학이 이렇게 '強迫運動'을 실시하면서까지 유학간 청화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東亞病夫 동아시아의 병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데에는 청화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1900년 서구의 '8군 연합군'이 북경을 침공하였다. 이때에 무너진 청정부는 1901년 9월 《辛丑條約》에 서명하면서 배상금으로 은 4.5억량을 배상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으로서는 치욕적인 '庚子배상'이다. 하지만 이 배상금이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면서, 1904년 미국은 받은 배상금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이 자금으로 학교를 만드는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중 협상을 통해 1908년 이 배상금으로 중국 청년의 미국내 유학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1909년 7월에는 청정부의 외무부에서는 돌려받은 배상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갈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하였고, 학부에서는 급히 예비 유학반을 모집 준비시키고자 했다. 1911년에 청정부는 이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는 예비학교를 '청화학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캠퍼스를 '청화원'이라고 하였다. 나중에는 중국 정부와 외교부가 관할하는 청화학교로 이름을 다시 바꾸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서구로 떠나는 유학생들의 비중이 높았다.

국비 유학생 예비학교시절의 '청화학교'는 8년 학제

였고, 졸업하면 미국대학의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창기 교사들은 외국인인 많았고, 교학방법 교재 교육과정 모두 미국과 비슷하였고, 영어 학습을 중요시하였다. 1909년과 1929년 사이에 청화학교에서 공부하고 선발해 유학을 간 학생은 모두 1280명이나 되었다. [2]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있는 돈으로 유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다시 미국에서 '동아시아의 병자'로 언급되는 일이 생기자. 학교에서는 급히 馬約翰을 찾은 것이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고민하던 馬約翰은 전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1920년 그가 체육과 주임이 된 후 바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는 단순히 모든 학생들이 이 시간에 나가서 신체단련을 하라고 방기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조별운동을 하도록 조직해주고, 참여 학생의 출석부 기록 방안을 강구하고, 운동의 싫어하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계체조, 구기종목 등 흥미있는 체육활동 종류로 다양화하여 적극적으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또 당시 청화대학에는 유명한 '체력측정표준体力測驗及格標準'도 있었다. 줄타기, 멀리뛰기, 수영 등으로 정해진 목표치에 도달해야 졸업이 가능한 학칙이었다. 이전까지는 이름뿐인 시험이었다지만, 馬約翰 교수는 엄격하게 이를 적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馬約翰은 이어 더 엄격한 학교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당시 청화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00미터 달리기와 축구 배구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五項測驗 다섯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학을 위한 출국이 금지되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吳宓는 중국 현대의 비교문학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그 역시 청화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유학한 중국 인문학의 거장이다. 하지만 그가 학생일때는 멀리뛰기가 3m 50으로 합격선인 3m 65를 넘지 못해 미국유학을 떠나지 못하고 반년을 지체하게 된 일화가 있다. 중국의 유명한 과학자 錢偉長은 청화학교 입학시 신장이 149mm에 50kg이 되지 못하였으나, 馬約翰의 지도로 훗날 청화학교의 유명한 중장거리 선수가 되었다. 중국의 유명 현대 문학가이자 작가인 梁實秋도 수영을 합격하지 못해 늘 재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중국의 유명한 건축가 梁思成 등도 청화시절 馬約翰의 지도로 높이뛰기 선수가 되었고,

평행봉과 줄타기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던 것이 훗날 자신이 여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馬約翰은 때로는 결핵을 앓고 있던 학생까지도 교내 의사와 연결해 상세한 체력단련요법을 실시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체육치료법'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실제로 신체단련이후의 심신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는 성공적인 미국유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나중에 이를 회고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고 장기화되자, 중국 북경과 친진 상해 등의 큰 대학들은 운남지역으로 옮겨가고 연합대학 형식으로 전시의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대학의 이름은 西南聯合大學이었다. 이 곳의 운동장 사정은 열악하여 이전처럼 학생운동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이 시기에 馬約翰은 기존처럼 매일 운동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일정 정도의 체력 측정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는 원칙을 고수 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청화대학은 남학생의 경우 3000m 달리기와 턱걸이, 여학생은 1500m 달리기와 멀리뛰기의 기준치를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청화대학내에는 '馬約翰'이라 명명된 크고 작은 42개 종목의 대회가 있는데 100m 달리기부터 체조까지 청화대학에는 올림픽 종목보다 더 많은 '馬約翰'배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馬約翰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오후 신체활동에 참여하라 권면하는 데에는 다양한 확신이 있었다. 먼저 자신의 어린시절 자연속 성장과정과 청소년 시절 육상 선수로 활동하면서 체력 훈련이 신체와 인격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22세에 상해에 있는 聖約翰대학에 입학하여, 1911년 29세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약 8년 동안 서구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이 기독교 대학을 다니면서 서구의 근대화된 학교체육프로그램과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 聖約翰대학은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며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다양한 서구의 근대 스포츠 종목을 가르쳤고, 이를 중국 사회에 학교간 운동회 등으로 사회체육의 발전까지 견인한 것으로 유명하다.

馬約翰은 학창시절 기독교 대학이었던 聖約翰대학에서 교수들의 체육교육의 장점을 체험하였다. 또 자신의 다양한 서구 근대스포츠 활동 참여경험이 나중에 교수가 된 馬約翰의 체육교육 신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馬約翰은 그는 청화대 재직시절 1919년과 1925년 두번이나 집중휴가를 신청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스프링필드(Springfield) 대학에 가서 꾸준히 새로운 체육관련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였다.

이 스프링필드 대학은 당시 세계 기독교청년회(YMC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미국내 우수한 청년을 가르쳐 전 세계에 나가 적극적인 신체활동과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의 일부로 하는 기독교 훈련학교로도 불리고 있었다.

1885년 YMCA에서 이 학교를 설립하였고, 국제적인 YMCA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여기에는 굴릭(Luther Halsey Gulick)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는 영국에서 건너온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의 신봉자였다. 굴릭과 YMCA 스포츠 담당자들은 스포츠 교육을 학교와 사회로 확장시켰다. 이 학교에서는 아시아의 잠재성 있는 기독교 청년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체육교육을 진행하여 이들을 지도자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馬約翰은 聖約翰 대학과 이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기독교 체육사상에 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우 실질적인 체육교육의 기술도 습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馬約翰은 이 대학에서 훗날 중국에서 체육교육 활동을 같이하는 중요한 동료인 중국인 유학생 郝更生와 董守義를 만나게 된다.

馬約翰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체육사상이나 체육교육의 배경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당시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요동했던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馬約翰은 자신이 교육받았던 체육사상에는 침묵하는 것이 바로 생존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이 역량은 오직 학생지도의 실천역량으로 발휘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馬約翰은 청화대학에 부임하여 1966년까지 청화대학 체육부 교수로 재직하는 50년 동안 중국 청화대의 학교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중국의 근현대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기독교청년회(YMCA)와 聖約翰 대학 그리고 미국 스프링필

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馬約翰 중국 청화대학 교수 재직시절,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그는 수많은 맨손 체조를 개발하였고, 《体育運動의遷移价值》, 《我們對体育應有的認識》과 같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중국 체육계에서도 馬約翰의 영향력도 커서 1936년에는 중국 육상대표팀 총감독으로 제 12회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유럽과 소련 등을 시찰하면서 해외의 좋은 체육교육방법들을 배우고 익혀 중국인의 체질에 맞는 운동법을 구상하여 백여종의 맨손체조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청화대학에 축구, 농구, 테니스, 하키, 야구, 수구, 육상, 수영, 권투 등 십 여종의 운동부를 창설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적은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대학이다 보니 신체활동보다는 학업을 더 중시하는 풍조였다. 하지만 馬約翰은 1920년 미국인 교수의 뒤를 이어 청화대학 체육부 주임이 된 이후 수년간 이들 운동부들을 성장시키고, 단시간내에 이들 운동팀에서 20여개의 중국 신기록을 갱신되었을 정도의 강한 팀을 만들었다.

특히, 훈련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운동실력 제고에 힘을 썼다. 예를 들어 청화대학의 축구부는 1911년부터 1921년까지 약 10년간 대외경기 58차례를 치렀고, 그중 44번을 승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꾸준히 1929년까지 축구팀을 이끌고 중국 전역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 [3]

뿐만이 아니라 馬約翰은 청화대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당시 북경의 주요대학인 북경대, 북경사범대, 연경대, 보인대등의 체육과 교수들과 체육회를 설립하고, 건전한 체육 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이들 대학과의 경기시 폭력이 줄어들고, 스포츠 정신에 맞는 스포츠 문화가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스포츠 경기 풍토의 변화는 점차 북경 및 중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III. 馬約翰의 체육 관련 논술과 실천

馬約翰은 1914년부터 중국 청화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집중휴가 1년의 시간을 내어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 미국 스프링필드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이때 《体育經歷十四年》, 《体育的遷移价值》 등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1919년의 미국 스프링필드대학 연수를 마치고 쓴 논문 《体育經歷十四年》에서는 자신이 중국 교육현장에서 느낀 중국 근대의 학교체육의 성장 경험을 담고 있다.

“世界上沒有其它什麼東西，能比体育比賽更能激發學生對母校真實而巨大的愛了……比賽和集會，比對一個學校大加宣揚，作用要好得多。得勝對於一個學校來說具有巨大的重要性，學生家長同樣也分享一些勝利的光榮，而且要為其孩子所在的學校感到驕傲。”[4]

스포츠보다 더 모교에 대한 진실하고 큰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승리는 학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학부모들도 승리의 영광을 나누고, 그 아이가 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馬約翰은 이 사실을 입증하듯이 1929년 겨울 천진에서 열린 화북 체육연합회가 개최한 제 6차 축구대에서 청화 축구팀을 이끌고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된다. 이들 청화대 축구팀이 귀교시 전체 청화대학생과 교수 총장이 기차역에 나가서 환영하였다. 마침 새해를 맞아 학교의 대강당에서 이들의 환영행사 및 신년회를 거행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이다.

또 1925년에 작성한 석사논문인 《体育的遷移价值, The Transfer Value of Athletics》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체육이론을 서술하고 있다. 馬約翰은 체육이야말로 한 개인의 인격형성에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간의 거의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용기나 인내 자신감 그리고 진취성과 결정력등과 같은 소중한 인성이 체육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馬約翰은 다음과 같이 체육의 가치를 개괄하였다.

“通過適當組織的運動，人們可以增進對環境的敏感性和對生活中各種情況做出反應的‘有準備性’；通過適當組織的運動，可以增強美好的道德品質和性格……”[5]

알맞게 조직된 운동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생활 속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야 하는 반응인 준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적당한 그룹으로 이루어진 체육 활동은 도덕적 성품과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운동경기시 건전한 스포츠 풍토가 조성되지 않아서 경기도중 상대팀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기도 하였고, 청화대학의 축구팀내에서도 경기의 승부에 따라 선수들의 자만과 절망이 교차되었다. 馬約翰은 이러한 당시 중국의 스포츠 풍토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를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극복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예로 1928년 馬約翰이 청화 축구팀을 이끌고 제5차 화북지역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결승경기에서 청화팀의 선발전수가 상대팀에 의해 가슴을 맞고 쓰러지고, 경기장은 들썩였고, 두 팀 선수들의 격돌직전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馬約翰은 침착하게 그 선수를 교체시키고 경기를 재개하였다. 결과는 청화팀의 패배였지만, 관중들의 환호를 받게 되었다.

그는 또 청화대학 운동부의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 정신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여도 인격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시험 출전을 제한하였다. 馬約翰은 팀 선수들에게 “경기에서는 질 수 있지만, 스포츠 윤리도덕 부분에서는 질 수 없다.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는 승부를 마음에 두지 말고, 가장 먼저 경기에서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강조하였다.

또 馬約翰은 1954년 출판한 《我的健康是怎樣得來的 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건강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매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맹목적이 아닌 과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첫째, 적당한 운동을 할 것, 둘째,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것, 셋째, 신체 모든 부위를 골고루 전면적으로 운동할 것,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좋은 위생습관을 유지할 것, 규칙적으로 일하고 휴식할 것, 적당한 영양섭취를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馬約翰 자신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 속에서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 馬約翰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맨손체조를 하고, 태극권과 태극검을 연습하였다. 오전에는 체육관에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수면 전에는 산책을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신이 날마다 중단 없이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이어나갔다. 1958년에는 7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북경시 테니스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5]

IV. 馬約翰 체육교육 사상에 영향을 준 성요한 대학과 스프링필드(Spring field) 대학

馬約翰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후 1.2.3회 전국인민 대표대회대표를 역임하고, 1954년에는 중국 육상협회 회장, 중화전국 체육총회 주석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을 고려해 볼 때 중국사회에서 그가 결코 기독교이라 칭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馬約翰이 긴 시간 체육교육을 받았던 두 대학 聖約翰 대학과 스프링필드(Spring field) 대학의 성격과 그가 청화대학 교수 재직시절 ‘하계 체육학교’를 같이 진행했던 타 대학 교수들의 인맥을 통해서도 그가 기독교 체육사상의 토대를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28년 비교적 우수한 청화대학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중국내에 유명한 郝更生, 張匯蘭, 董守義 와 함께 “강국을 위해서는 먼저 강한 인민을 만들자 強國必先強種”라는 목적으로 몇 차례 ‘하계 체육학교’를 열고, 馬約翰 자신이 ‘인체해부학’과정을 강의하였다. 사실 馬約翰은 성요한 대학에서 1년 정도 의학을 배웠고, 미국의 스프링필드 대학에서의 2년 정도의 유학은 실질적인 체육학과의 이론적 연구의 지속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가 청년시절 8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독교 체육교육의 영향을 받은 대학은 바로 성요한 대학이다. 중국에서 문서에 따른 중국 최초 근대의 학교체육교육은 狄考文이 1864년 산둥에 설립한 登州文會館에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계적 대학교육과정이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대학을 인정한다면, 1879년 세워진 상해의 聖約翰書院을 최초의 기독교대학으로 볼 수 있다.

聖約翰대학의 초대교장인 卜舛濟(Francis Lister Hawks Pott)는 전면적인 인격 성장을 주장하며 ‘靈, 智, 體의 균형 잡힌 교육’을 주장하였다. 聖約翰대학은 1880년 초 학교 창립부터 서양교육을 모델로 하였기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당시 다수의 교회대학이 그러했듯이 聖約翰대학도 외국국적의 체육교사가 육상, 줄다리기 가르치고 농구, 테니스 등 서구의 새로운 종목을 도입하고 가르쳤다. 또 당시 학생들이 사용했던 체육설비들도 외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으로 기존 중국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 교회대학에서 처음

사용된 것도 많다. [6]

그리고 1896년 聖約翰대학은 상해에서 처음으로 야구단을 조직하였다. 또 학생들 방과후 체육 활동을 위하여 1897년 聖約翰대학은 교내 청년회를 만들고 산하에 소속 체육부를 조직하였다. 대학은 이들 체육부에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체육교사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의 대학에서도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聖約翰대학측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정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학교 학생들은 점점 자체적으로 테니스와 축구, 육상과 같은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대학내 외국인 교원들과 1911년 이전 중국정부에서 해외로 보냈다가 귀국한 유학생들이 함께 야구와 테니스 등의 서양체육 경기를 즐기게 되면서 이들 스포츠 종목은 사회로 점점 전파되었다.

聖約翰대학은 1905년부터 정규수업 외 활동으로 학생 체육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정규수업 시간의 각자 정해진 운동을 선택해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 6월 聖約翰대학은 중국 기독교 청년회와 함께 상해 제1회 중국인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1907년에는 남경에서 제 1회 전국 연합 체육대회를 주관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로 대학만이 아닌 약 80여개의 小學, 公學, 상업, 실업학교 등이 참여하고 69개의 종목의 경기가 실시되었다. 전국 규모로 진행된 대규모 체육대회를 聖約翰대학이 주관하였다는 점은 당시 체육계속 교회대학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또한 그와 1928년 청화대학내에서 시도한 ‘하계 체육학교’는 미국의 예일대학의 프로그램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들 ‘하계 체육학교’를 같이 진행하였던 郝更生, 張匯蘭, 董守義는 모두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였거나 미국 스프링필드 대학의 가까운 동문선후배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기독교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중국 근현대의 대학 체육교육에 이바지하였으며, 중국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董守義의 경우에는 올림픽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郝更生은 1899년 중국 강소성 출생으로 미국 콜럼비아 대학으로 유학가 토목공학을 공부하였다. 후에 중국인의 체격이 왜소하여 외국인들에게 비하를 받자 전공을 바꾸어 미국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였다. 귀국 후에는 청화대학, 동북지역과 산둥

지역대학에서 체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일찌기 제 3회, 6회, 7회 중국 전국 운동회 개최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았다.

董守義는 중국 근대체육사의 유명한 체육교육가이다. 저서로는 《籃球術》, 《田徑賽術》, 《足球術》, 《最新籃球術》, 《籃球訓練法》, 《國際奧林匹克》, 《歐洲考察日記》 등이 있다. 董守義는 하북성 통주 협화서원을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특히, 농구를 잘하였다. 1917년 농구팀 대표로 일본에서 열린 제 3회 원동운동회에 참여하였다. 1923년에는 천진 청년회 간사로 남개중학의 체육 감독으로 남개중학 출신 유명한 농구 선수들을 배양하였다. 그해 말 미국 스프링필드 대학 체육학과에서 연수를 받고 1925년 귀국하여 천진 기독교청년회 체육부 간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1930년부터 董守義는 북경 사범대학 북경 여자 문리학원, 서북연합대학, 절강대학 등에서 체육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화북체육연합회 이사로 또 중화전국체육협회총간사로 활동하였다. 1936년 董守義는 농구팀 감독으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고, 같은 해 유럽각국 체육발전상황을 시찰하였다. 1947년 국제 올림픽위원이 되었고, 1948년에는 제 14회 런던올림픽 중국대표단 총간사로 참여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에 董守義는 중국 배구협회회장으로 중화체육총회 부주석, 국가 체육운동위원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일생은 중국의 체육발전과 올림픽운동에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張匯蘭은 여성교수로 중국 운동해부학의 창시자이다. 1898년 출생으로 중국 강소성 남경사람으로 1917년부터 1919년 사이 상해 기독교여자청년회 체육사범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녀는 1920년에서 1923년, 1925년에서 1926년, 1938년에서 1946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에 가서 체육과 생물학 공공 위생학 등의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였다. 1947년 금릉여자대학 체육학과 주임으로 다시 시작하여 1952년 상해체육대학교교수로 이때 인체해부학연구실주임을 역임하였다. 1959년과 1964년 두 번 제 2회, 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되었다. 1980년에는 중화전국체육총회 부주석이 되기도 하였다. 운동해부학 및 중국체육기초이론의 과학적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들의 학력과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고, 중국의 근현대 체육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과의 교류를 했던 馬約翰이 지향한 체육교육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馬約翰이 유학했던 미국의 스프링필드 대학은 YMC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었다. 이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는 원래 기독교근로자학교(The School of Christian Workers)였다가 1885년 설립된 사립학교였다. 그러다가 1899년 국제 YMCA 훈련학교(International YMCA Training Schoo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는 YMCA 훈련학교나 국제 YMCA훈련학교로 불렀다. [7]

1912년에는 학교이름을 ‘국제기독교청년회 대학’으로 바꾸었다. 이 명칭을 40여 년간 사용하다가 1953년 미국의 대중들과 아시아 국가의 졸업생들이 이 학교를 습관적으로 부르는 스프링필드대학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정식으로 스프링필드대학으로 등록하였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야구를 도입하고, 조선인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질레트 역시 이곳 스프링필드 대학 출신이다. 그리고 질레트는 한국에 YMCA인 황성 기독교청년회의 창립을 준비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질레트는 한국 YMCA 총무로서 이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체육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질레트도 1900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에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이 학교를 졸업한 질레트 역시 이러한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에 의한 우리나라의 야구의 도입 배경에도 동일하게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사상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7]

미국 YMCA는 영국에서 유행한 강건한 기독교주의 중 지나친 남성주의가 아닌 말 그대로 강건한 기독교적 신앙과 신체적 건강을 지닌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더 발전하게 된다. 영국의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부정적 요소는 제거한 채 긍정적 영향만 수용한 것이다. 이어 이 미국 YMCA는 굴릭(Luther Halsey Gulick)의 손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굴릭은 미국 YMCA가 강건한 기독교주의 운동을 선도하면서 사회 스포츠 확산에 미치도록 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오늘날 YMCA의 휘장인 영, 정신, 신체로 이루어진 역삼각형 모양을 고안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뉴욕대 의대 박사학위를 받

고 질레트가 학생으로 다녔던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에서 근무하였다. [8]

쿨릭은 YMCA 내에 1887년부터 체육부를 결성하여 1900년까지 봉사하였다. 그리고 스프링필드 YMCA 훈련학교는 쿨릭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둔 체육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의 학교가 될 수 있었다.[9]

이 학교 졸업생인 질레트는 1901년부터 1913년까지 12년 간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YMCA 조직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나라 체육 특히 야구, 스케이트, 농구 발전의 기초를 다져주었다. 당시 질레트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일부 학자들의 말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을 돕거나, 스포츠의 발전과 YMCA 창설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 질레트의 가장 큰 목적은 당시 조선의 기독교의 선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질레트가 당시 조선에 이렇게 많은 체육사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제공과 지식을 공급한 학교가 바로 스프링필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대학에 중국 근현대 체육교육의 선구자였던 馬約翰 그리고 그의 동지였던 董守義, 郝更生 등이 수학하였던 것이다. 이 스프링필드대학 즉, 당시의 YMCA 훈련학교였던 이 학교의 설립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의 진리와 YMCA사업에 대해 철저히 훈련을 받고, 기독교다운 성격을 검정 받은 사람들을 실전에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체육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양성된 지적인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며,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 결국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인 체육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중사할 체육지도자들을 일선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10]

이처럼 당시의 스프링필드대학은 기독교교육사업과 체육사업을 실천할 인재이자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표가 있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위의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馬約翰이 교육받았던 학교, 동료, 그리고 그의 업적을 통해 馬約翰의 내면에 자리한 체육사상은 너무나도 분명한 강건한 기독교주의 체육사상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馬約翰 체육사상의 형성의 토대는 그가 긴 세월 교

육받은 聖約翰 대학과 청화대학 재직시절 집중 연수유학을 했던 스프링필드 대학을 미루어보았을 때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이었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는 이와 연관된 미국 YMCA 체육정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그와 활동을 함께 했던 중국의 체육계의 교수들도 모두 비슷한 기독교대학의 영향에서 성장하였거나 미국 스프링필드대학에서 유학한 사 람들이다.

馬約翰은 많은 전문 저술이나 학력을 보유한 체육학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의 근현대 대학체육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했던 체육교육자이다. 그가 청화대학 재직시절이후 청화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미국유학 예비반이었고, 이들에게 세계에 나가서 뒤지지 않는 강건한 신체적 조건과 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형식뿐이었던 청화대학의 강제적 신체 단련활동인 ‘強迫運動’의 원 취지에 맞게 많은 학생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자신이 이미 훌륭한 선수경력과 교수경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학적 지식의 한계를 부족함을 인지하고 두 차례나 미국 스프링필드대학에 연수를 가서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청화대학의 여러 종목팀들을 육성하였고, 이 과 정속에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경기도중에 실현되도록 노력하였고 이는 중국내 대학과 북경사회에 암암리에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는 신체의 단련이 누구에게나 평생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실천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운동선수로서 또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체육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몸소 체험하고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심신일체의 체육사상, 실천력 있는 지행합일의 체육사상, 체육보급우선주의의 체육사상은 오늘날 중국의 청년들의 삶속에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https://baike.baidu.com/item/%E9%A9%AC%E7%B A%A6%E7%BF%B0/3025303?fr=aladdin>
baidu 백과 馬約翰편
- [2]<https://baike.baidu.com/item/%E6%B8%85%E5%8D %8E%E5%A4%A7%E5%AD%A6/111764?fr=aladdi n#1> 清華大學>學校概況>清華史苑

- [3] Ma Ai-Guo . Ma Yu-Han's Thought on Physical Education. *Shandong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1(02)
- [4] CPPCC (National Committee on Literature and History), "Remembrance of Han", Chinese Literature and History Press.
- [5] ZhangZao, "Ma Yue-Han : China's First Physical Education Professor", *China Weekly*, 2010-06. p7
- [6] Shin eui-yun, Kim Youn-soo. "A study of physical education and activity of missionary university in modern China". *The Journal of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Conference* vol 44,p129-148. 2014
- [7] Kim yong-hyun, Shin eui-yun, Kim Youn-soo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seball and Muscular Christian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153.
- [8] Kim yong-hyun, Shin eui-yun, Kim Youn-soo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seball and Muscular Christian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154.
- [9] Kim Dae Sung · Kim Youn Soo, A Study on Military-style gymnastics and Its Adoption in Public Schools in Late Chosun dynast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6 No.4 152-157 (2018)
- [10] Lee, Ka-Ram, The Influence of Philip L. Gillett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Modern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2014, 19(2) p106.